

산학협력과 대학교육

1. 우리 교육과 산업현장의 실상

요즘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교육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교육은 많은 사람의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여태까지 교육을 담당해 왔던 정부에 게도 여전히 큰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한국 교육의 큰 틀을 건드리려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우리 모두는 아직 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도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교육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이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좀 더 명문 학교, 좀 더 인지도가 높은 학과, 좀 더 수도권에 가까운 곳 등을 선호하여 학교 간, 학과 간,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수가 점점 더 줄어들어 외국 학생들 을 모셔 와야 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적인 이유로 줄어드는 입학자원을 늘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일까? 크게 보면 교육

을 대기업 취업의 방편으로 여겼던 국민적 정서, 학벌 위주의 인사 정책이 당연시 되었던 대기업, 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교육 요구가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만족시킬 교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재영

031-4968-311/ jylee@kpu.ac.kr

육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육 기관들의 노력이 미흡했던 점, 마지막으로 비전 없이 갈팡질팡했던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산학협력과 대학교육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2. 산학협력의 가능성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은 산업 대학으로 산업 현장과 친화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즉, 취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기업들의 불만은 대학을 졸업한 신입 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려 면 적어도 6개월 걸면 2~3년이 지나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 이런 인력들이 현장에 적응 한 뒤 오래 근무하지 않고 일찍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고용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인 낭비도 많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대학, 기업체 및 관련 정부기관들과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가 일관되지 않았고 뚜렷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입시과열을 해소하는데만 너무 집착한 면이 없지 않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대기업 취업을 위해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열망은 만족시켜 주지 않고 입시열풍만 잠재우려 하는 것은 화재 현장에 불씨를 남겨 놓아 또 다른 화재의 원인이 되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특종목적에 의한 능력을 확실하게 배양해 주지 못한 것이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자질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너무 단기간의 실적 위주로만 확충하였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로 인한 과다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이직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충분한 기초 실력을 배양하고, 부딪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도 단절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도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최근 대학,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도 산학협력의 강화를 위한 점은 일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임금 노동력을 무기로 제조업에서 우리를 바짝 쫓아오는 중국과 첨단 기술로 제조업을 살려서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회귀시키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국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과 연구 시설은 당장 돈이 많이 요구되고, 수익증대에 한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들이 다 개발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려고만 하고 있다. 대기업들조차도 최근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적재산권이 당장 문제가 되어 자신만의 신기술이 없다면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은 기업들의 연구실로, 기업 현장의 학생들의 실험실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모델이 이상적으로 운영될 수만 있다면 기업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대안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 자신들의 업무에 꼭 들어맞는 맞춤형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대학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현장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개발과, 이런 지식 습득을 강화하려는 입학자의 증가에서 대학들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3. 산학협력의 문제점과 대책

하지만 당장 현실에 있어서 앞서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장밋빛 전망만 제시할 수는 없다. 우선 이렇게 산학협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 산학협력이 진정으로 요구되지 않는 소위 3D 업종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위해기업은확고한기업 목표의설정과과격적인사정책을제시할수있어야하고, 정부는이를 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 것으로생각한다. 대학졸업자들 취업에있어서 블루오션이무엇인지를 판단해야할것이다.

더구나산학협력이라는용어에대한 해석과입장이모두같지않았던것도문제점이다. 대학들은 기업문화에대해충분히이해하지않고, 기업의태로사항들에대해 철저하게분석해보지않고 일방적으로도움을제공하려고만했으며, 기업들도인력을 바탕으로한 전략적인협력보다는단기적으로 양질의저렴한노동력확보와자신들의통상적인 운영을위한국가지원확보에이용하고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도기업이나대학에실질적인 도움을주기위한고민보다는정치적인전시용 실적확보에더 관심을두고있지않았었나하는우려가있었던것도사실이다. 그러나최근대학들이 산학협력에관심을갖기 시작하여기업들과의교류가빈번해지고있는것이 새로운트렌드로나타나고있다. 그렇지만 아직외형적인면만을강조하고 있는것이 시급히개선하여야할 점이다. 그러나 일부기업들은자사에필요한기술교육을위한 커리큘럼개설을대학에능동적으로요구하고있으며, 대학들은기업들이필요로하는연구소를캠퍼스내에유치하는등 긍정적인변화도많이일어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부도수치로나타나는 결과에만집착하지말고 기업들이실질적인기술 개발에무엇이 필요한지를정확히 파악하여가급적이면기업들이원하는방향을바람직한것이 될 수 있도록유도해나가야할것이다.

산학협력이이론대로라면상당히매력적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지나치게현장만을강조하여 대학 본연의업무인기초교육의수행을망각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교육수행과함께현장감각을겸비한연구를병행하여기업에실질적인도움을줄 수 있도록대학은부단한노력을해야할 것이다. 기업들도자신들이필요로할 기술들이무엇인지면밀히검색하고, 이를개발하기위한연구 전략을치밀하게세워야할 것이다. 그리하여대학과 함께실질적인연구를진행하고이들인력들을 자연스럽게흡수할수 있는 유연한경영시스템을 확보하도록노력해야한다. 정부도이런순환구조가자연스럽게일어날수 있도록적극적인행정적, 법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 것이다. 모두가 이런역할을자발적으로수행할때 현재와같은젊은이들의심각한취업난을덜어주고, 중소기업들의 원활한기술개발을도울수 있으며, 장래우리나라산업의성장동력 창출과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할수 있는진정한산학협력이일어날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기술표준2007. 5